



'칠레 해안지역 가장 우수한 와이너리 선정'

레이다 로트 21 피노누아

Leyda Lot 21 Pinot Noir

지역	칠레 > 산 안토니오 > 레이다 밸리		
포도품종	피노 누아 100%		
알코올	13.5%	용량	750ml
등급	D.O. Valle de Leyda	시음 적정 온도	13-15°C
테이스팅 노트	진한 풍미를 자랑하는 레이다 로트 21 피노누아는 오크향의 절묘한 조화와 함께 느껴지는 딸기, 블랙체리, 오렌지껍질, 그리고 허브향까지 복합적으로 보여준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첫 인상으로는 신선하면서도 달콤한 레드베리를 느낄 수 있다. 진한 블랙 베리의 풍미와 잘 익은 타닌의 부드러운 질감이 입안 가득 감싸며 기분 좋은 여운과 함께 피니쉬가 길게 이어진다.		
페어링 TIP	붉은 육류/ 치즈		



제품설명



레이다를 대표하는 아이콘 와인 '로트(LOT) 레인지'는 레이다 밸리만의 특별한 개성과 가능성을 명확히 표현해 내기 위한 와이너리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같은 포도원 내에서도 미세기후에 따른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관리하고 있는 레이다 와이너리는 각 품종에 맞는 최적의 위치에서 포도를 재배한다.

단 1헥타르의 피노누아 품종에 최적화된 '구획 21'에서 재배된 포도만을 사용하여 양조되는 '레이다 로트 21 피노누아'는 기존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스타일의 프리미엄 피노누아 와인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수상내역



2022빈티지 데스콜차도스 Descorchados 95점
2022빈티지 디켄터 Decanter 95점
2022빈티지 팀 아킨 Tim Atkins 94점

와이너리



1998년 "레이다 밸리"에 설립된 레이다 와이너리는 오늘날 현대 칠레와인의 혁신의 아이콘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통적으로 매우 건조한 레이다 밸리는 포도를 재배할 수 없는 곳이었으나 이 지역의 잠재된 가능성을 확신한 레이다 와이너리는 마이포강으로부터 8km에 이르는 수송관을 건설하는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함으로써 이 지역 최초의 포도원을 조성하며, 새로운 프리미엄 재배지를 개척했다.

레이다 와이너리의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인정받아 2002년 5월 드디어 칠레 정부에서는 와이너리 이름을 넣어 '레이다 밸리'라는 D.O.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오늘날 서늘한 기후(Cool Climate)의 특급 프리미엄 와인을 대표하는 산지로 칠레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기존과 차별화 되는 새로운 스타일의 피노 누아 및 화이트 와인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레이다 와이너리는 세계적인 주류 전문지 'Drink International'에서 '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50대 와이너리'에 2013년, 2014년 2년 연속 선정되면서 세계무대에서도 그 진가를 인정받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